

다산포럼

적폐(積弊)는 어떻게 척결되는가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해방 이후 한국정치에서는 분단, 쿠데타, 유신, 광주를 차례로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근 반세기 동안 행해져 왔다. 위로부터의 정치가 강압을 통해 아래를 형성하고 먹이사슬로 유착된 위와 아래 의 상부상조가 부패관행으로 고착되었다. 민주화를 자유화호 호도하며 보낸 세월이 어느새 훌쩍 다시 사반세기다. 그간 주체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서서히 이전했을 뿐, 한국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가 보수적 지형 위에서 구축되고 전개되어 왔다. 냉전반공주의, 성장지상주의, 지역주의 등 퇴행적이고 병든 이데올로기의 상시적 동원이 그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라면 그것은 일차로 한국적 보수가 쌓아올린 지적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 신자유주의를 맨발로 뛰어나가 맞았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진보나 좌파로 몰아

세우고 잃어버린 10년 운운한다면, 이는 스스로 현실인식을 부정하고 무책임한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진보진영의 편에서 보면, 미군정 3년을 포함한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가 그 야말로 통째로 잃어버린 70년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산업화의 지적을 아무리 치켜세운다 해도, 그 와중에 구조화된 정치-시장의 유착 고리가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 뿌리로 작용했다면 산업화를 위해 치른 비용, 그것이 강요한 희생, 고통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에 적폐를 척결한다는 말은 어떤 점에 비추어 한국적 보수의 기반과 논리를 허문다는 의미에 달아있다. 원죄적 과거와의 결연한 단절도 불사하는 준엄한 자기성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작업의 성패는 일찌감치 정해진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는 청산의 의미가 담겨있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먼저 단호하지 못한 신념은 독단이 되고 맹목적인 고집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애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심의 날을 세울 필요는 구태어 없겠지만, 나는 사과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완강한 인사행태에서 아무런 희망의 불씨도 보지 못한다. 과일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과일나무도 이파리는 여전히 무

성할 수 있다. 대통령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인사행태는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돌아보면 대선 과정의 과거사 논란부터 국정원 선거개입 추문, 그리고 최근 여객선 참사에 이르기까지 계기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적극적으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던 적이 없었다. 대통령 특유의 모호한 언사와 번번이 떠밀리듯 이뤄졌던 사과 표명에서 청산에 대한 어떤 결의도 읽지 못한다 한들 비난할 일 아니다. 가장 힘든 논쟁상대는 천재도 바보도 아닌 경직된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런데 정말 난감한 경우는 자신이 경직된 줄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이다. 그런 박 대통령이 보이는 일련의 행태는 과거 청와대가 준 영예가 너무 강해서 여타의 사회화 학습을 변변히 체험할 기회가 없었으리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항수,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고도 짙게 배어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었을 것이다. 운명을 어찌 사죄하겠는가. 그러나 애초에 정상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없던 이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창밖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실내의 바로미터가 ‘날씨 쾌창’을 가리킨다면, 이는 바로미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980년

대 초 영국보수당 수상이었던 대처의 통화주의가 온갖 불리한 경제지표들 속에서 더 고수되는 것을 빗대어 수상의 최측근이던 이안 길보어가 했던 말이다. 적폐 척결을 외치는 현 정부가 개혁의 주체로서 과연 개혁의 대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자신이 없다. 어쩌면 우리 포도를 맺지 못한다고 가시나무를 책망하고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영귀나무를 비난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슬픔을 느낄 때 슬해진다. 그리하여 슬픔은 희생자에 대한 연민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들지만, 슬픔이란 감정 역시 지속적이지 않다. 슬픔도 잊힌다. 곧이어 다칠 브라질 월드컵 ‘축제’는 우리의 망각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 적폐는 개선 난방이라 했던가. 그러나 분노는 상당한 정도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적인 분노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잊되, 공적인 불의 앞에서도 침묵을 미덕으로 삼는다면 이는 패배주의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와 사회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책임지는 정치, 깨어 있는 국민을 위해 진일보해야 하니까.

양동욱의 S스토리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오른손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둘째와 넷째 손가락의 길이를 비교해본다. 남성이라면 보통 넷째 손가락이 약간 더 길 것이고 여성이라면 둘째 손가락이 약간 더 길거나 유사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손가락 길이 차이는 임신 초기 성호르몬의 영향 탓인데, 넷째 손가락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둘째 손가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넷째 손가락이 더 긴 여성이나 둘째 손가락이 더 긴 남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손가락이 긴 여성은 태내기 동안에 남성 호르몬에, 둘째 손가락이 긴 남성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

성적 다양성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손가락 길이 차이는 동성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 중 하나인데, 여러분은 이 이론의 논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애적 틀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성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성 역할을 학습하며 이성애적 사랑을 가장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으로 믿는다. 이 믿음은 너무나 당연해서 다른 형태의 사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성(sexuality)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성이 다수인 사회에서 그 다양성은 성적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성애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 개인이 정서적, 육체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가는 성적 지향과 관련된 다. 이성애자는 반대의 성별, 동성애자는 같은 성에, 양성애자는 남녀 모두에게 끌린다. 이러한 끌림은 후천적인 경험보다는 타고난 본능에 가깝다. 예로, 뉴기니아의 삼버어족 남자는 아홉 살이 되면 가족과 헤어져 마을 중앙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살며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동성

애 의무를 이행한다. 아동기 때는 성인 남성의 정액을 먹고,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정액을 다른 아동에게 먹이는 일이다. 이들은 십 년 가까이 동성애 생활을 하지만, 그 의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성애 생활로 돌아간다. 성적 지향은 경험 또는 노력으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성애적 가치가 가장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자연에 거스르는 행위로 생각하며, 동성애자들이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혐오한다. 동성애자를 향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을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차별이나 폭력과 같은 적대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나는 남자다” 혹은 “나는 여자다”와 같이 성 정체성을 구분 짓는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타고난 육체와 그 육체에 깃든 영혼이 일치하지 않아서 성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즉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거나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생물학적 성별을 반대의 성으로 바꿔 살길 원

하거나 실제로 수술을 해서 자신의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성전환 수술 후 대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통해 반대의 성으로 인정받지만, 성전환자의 삶은 참으로 힘든 가시밭길이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딸이 되고 딸이 아들이 되어버린 상황을 부모가 쉽게 받아들이기 만무하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어렵고, 성전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소외된다. 누구도 사회의 비주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성적 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방향 지는 것뿐이다. 성적 소수자들은 그들의 매일 매일의 삶이 편견과 차별에 싸워야 하는 끝까지 않는 숙제와 같다고 말한다. 성적 소수자의 삶의 원인을 파헤치기 보다는 ‘마음을 열어봐요. 고통이 생각해보요. 우리 어디에 있어. 바로 당신 눈앞에 있어요.’의 노래 가사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社說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한 광주시장 선거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이용성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강 후보와 이 후보는 26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서울리서치가 각각 유권자 11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선 경쟁력·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는 최초로 유력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용성 후보는 이날 강운태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적극 돌기로 했으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강-이 단일후보 파괴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후보 단일화와 전략공천 논란에 맞서 총력전을 펴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공천 이후 두 차례나 광주를 찾아 온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펼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양측이 시찰을 건 승부에 나섬에 따라 불·탈법과 흑색 선전 등 극도의 혼탁선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 내 여론 분열과 갈등 양상의 개연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의 공이 시민들에게 돌아간 만큼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 정책 대결과 비전 제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도. 유권자들 역시 금품과 향응 등 혼탁선거에 휩쓸려선 안 된다. 잘못된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민주시민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차분하고 냉정하게 공명선거에 나서 아름다운 갈등을 겪어야 한다.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면 결코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 핵심 PK독점 ‘호남 소외’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특정지역 편중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 권력의 3대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채워져 지역 편중 현상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법부 양대 산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고향은 부산이다. 행정부 수장으로 지명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함안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는 경남 창원 출신인 정의화 의원이 내정됐다. 또한 사정 라인인 황철홍 감사원장(경남 마산)과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홍경식 민정수석(경남 마산), 김수민 국경원 2차장(부산) 등 권력의 핵심부도 예외 없이 PK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요직의 PK 편중은 경남 거제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입성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1992년 말 대선 당시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조원복집사건의 주인공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 권력의 3대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채워져 지역 편중 현상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법부 양대 산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고향은 부산이다. 행정부 수장으로 지명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함안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는 경남 창원 출신인 정의화 의원이 내정됐다. 또한 사정 라인인 황철홍 감사원장(경남 마산)과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홍경식 민정수석(경남 마산), 김수민 국경원 2차장(부산) 등 권력의 핵심부도 예외 없이 PK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요직의 PK 편중은 경남 거제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입성 이후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無等鼓

유년시절 뉘뉘던 고향집 뒤편 대밭에는 유난히 사슴파리가 많았다. 대개 굵막 남은 작은 파편에 불과해 어느 시대, 어떤 모양새의 도자기인지 무척 궁금했다. 게다가 동네 어느 골짜기에 언 옛날 그릇 굵던 가마가 있었다는 구전(口傳)과 맞물려 상상의 나래를 펴곤 했다. 해곡 최순우(1916~1984) 선생은 평생을 한국 미(美)와 함께 산 미술사학자이다. 그는 명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서 “한국의 미술은 언제나 담담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서 좋다. 없으면 없는 대로의 재료, 있으면 있는 대로의 솜씨가 별로 꾸밈없이 드러난 것. 다채롭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그다지 슬플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담담한 매수세가 한국미술의 마음속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귀족적인’ 고려청자에 이어 등장한 ‘서민적인’ 분청사기에 대해 “가까이 들여보는 아름다움보다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당장에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는 돌아서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명저대 운용이 교수 역시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이라는 글에서 “분청사기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역동적이면서도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이라고 묘사했다. 15~16세기에 지방마다 모란·연꽃·물고기를 조각칼로 굵게 새겨나, 귀얄 칠을 하거나 백토물에 담그는 등 색다르게 분청사기를 만들었다. 고흥 등지에서 제작된 분청사기 스타자이다. 그는 명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서 “한국의 미술은 언제나 담담하다. 그리고 욕심이 없어서 좋다. 없으면 없는 대로의 재료, 있으면 있는 대로의 솜씨가 별로 꾸밈없이 드러난 것. 다채롭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그다지 슬플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담담한 매수세가 한국미술의 마음속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귀족적인’ 고려청자에 이어 등장한 ‘서민적인’ 분청사기에 대해 “가까이 들여보는 아름다움보다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당장에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는 돌아서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덤병 분청사기

‘덤병 담갔다’에서 ‘덤병 분청사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고흥군이 오는 2016년 말 완공 목표로 (가칭)‘덤병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에 나섰다. 고려·조선시대 가마터 30여기가 남아있는 두원면 운대리 일원에 들어선다. 실물 ‘덤병 분청사기’를 주위에서 쉽게 보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전시관 설립은 반가운 소식이다. 발굴에 차이는 사슴파리 한조각에도 숨겨진 역사가 있는 법이다. 앞으로 도내 곳곳에 차질 있하지기 쉬운 지역문화 화를 테마로 한 전시관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기고

범의학자가 진단한 안전 한국



김 윤 신
조선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범의학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안전에 무감각한 지 피부로 느껴야 했던 적이 많았다. 범의학자로서 필자가 애대왔던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3불(不)은 불신, 불합리, 안전불감증이었다. 항공기사고 같은 대형참사는 논외로 하고라도 가까이에 횡단보도를 두고 잠깐의 편안을 위해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무모한 위험감수는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또 한 번의 대형참사가 피해자 가족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까지 절망과 허탈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그리도 쉽게 전복되면서 침몰해야만 했던 것인

지, 어떻게 대응을 했기에 그리도 많은 인명이 그토록 허망하게 희생되어야 했는지~ 보도에 따르면 안개 때문에 출항이 늦어진 여객선이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화물승선이 이루어진 지 불과 3분 만에 배가 출발을 했다고 한다. 풍랑 등 해상환경의 악화에 대비한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소홀했을 것임을 알리는 대목이다. 지금껏 그렇게 운항해왔을 것이고 그때마다 별탈없이 운항을 마쳐왔을 것이다. 어째서 그랬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면서도 무모한 기대가 안전불감증의 근원이다. 구조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혼선을 일으키고, 승선자의 숫자마저도 오락가락했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했다. 현장에서의 구조조치가 우왕좌왕하며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대형참사를 마주한 언론의 보도 행태도 크게 나을 바 없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보도에만 급급할 뿐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못한 부정확한 정보를 여과 없이 내보냈고, 마이크를 잡은 아나운서의 멘트 또한 정리되지 못한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답답함만 보여줬기 때문이다. 안전한 나라는 권력자가 외치는 구호만으로 이룩되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 높은 분(?)들이 사고현장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성난 군중 앞에 절절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일 뿐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피해가족의 절망을 안아주고 안심시켜주는 진심도 품위도 권위도 보여주지 못했다. 시체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지고, 엄청난 재난 앞에 모두의 이성이 마비된 듯 했으며, 검시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실종되고 말았다. 위기관리 리더십의 실종이라는 지적 앞에 국가안전처리 국가개조 수준의 대책이 허는 방안들이 쏟아진다. 국가의 책자가 약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사고가 생겼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선부터 대책이 아닐까. 세월호 침몰 후 모든 수색여행을 취소하게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수색여행 중 사고가 나면 수색여행을 중단시키고,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무능한 선장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안전을 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한 삶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부터라도, 거리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앞에서 차량은 어떻게 길을 양보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인지를 어른들이 스스로의 본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팽목항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표정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불끈 쥔 주먹은 누군가를 향해 돌을 내려질 듯한 분노와 긴장이 가득했다. 세월호의 참사 앞에 온 국민의 일상이 정지되어 버린 듯한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까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지고, 부끄러운 어른이 된 자신을 향해 내던진 돌맹이도 돌무덤을 쌓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교훈의 돌무덤을 쌓아두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